

도 지방세수 증가 VS 폐광지역 기금 감소...강원랜드 '레저세 논란'



최근 레저세 과세와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강원랜드의 카지노 전경. 강원랜드가 있는 폐광지역 7개 시군의 단체장과 지역 여론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에 대해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목적인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레저세·전자카드제 '득과 실'

5일 국회사무처가 밝힌 의안접수 현황을 보면 총 14건의 법률안 중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10명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강원랜드 등 국내 게이밍업체와 체육계,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던 이른바 '레저세' 법안이다. 레저세 못지않게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반대 여론이 거센 '전자카드제'도 현재 시범운영에 이어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다.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 붐 속에 앞으로 거센 변화와 경쟁을 앞둔 강원랜드로선 새로운 과세와 규제라는 무거운 짐까지 짊어진 셈이다.

●레저세?

강원도 연 1200억원 세수 증대 기대
폐광기금 420억원 감소...취지 역행
구자관 교수 “중세 목적이 분명해야”

●전자카드제?

도박중독 예방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불법 사행도박 증가 등 역효과 우려

VS “복지정책 추진 지방세수 확보 불가피” “폐광지역 지원 설립취지 어긋난 과세”

레저세가 지역사회와 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추진되는 배경에는 지방세수 확보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복지정책으로 지출은 늘어났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어 새로운 지방세 재원 확보가 절실했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랜드 카지노에 레저세와 관광세 부과로 연 120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레저세와 함께 부과되는 4%의 교육세와 2%의 농어촌특별세로 세수가 늘어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도 레저세 부과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을 비롯해 태백, 삼척, 영월 등 '폐광지역'에서는 지역 경제의 중요한 재원이던 폐광지역발전기금(이하 폐광기금)이 크게 줄어든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레저세를 부과하면 2013년 매출 기준 1144억원이던 폐광기금은 724억원으로 420억원이나 감소한다. 강원랜드도 공기업이라는 특수성과 최고경영진 장기 공백이라는 내부 상황 때문에 임장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난감하진 마찬가지다. 지난해 강원랜드는 국세 2100억원, 지방세 187억원 등 총 2287억원을 세금으로 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레저세, 교육세, 농특세, 관광세 등 새로 내야 할 세금이 2062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3년 1조2773억원인 강원랜드 매출의 34%에 이른다. 구자관 한중대 호텔카지노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레저세 논란에 대해 “중세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모호하고 단지 세수 늘리는데만 집중했다”며 “마카오나 싱가포르의 경우 세금이 높아도 사용 목적이 분명하고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반발이 없다”며 밝혔다.

VS “사행산업 과몰입 방지 효과” “환급알 낚는 거위 배 가르느 실수”

레저세가 세수 확보가 목적이면 전자카드제는 '도박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방안이다. 2007년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탄생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설립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다. 올해부터 경마 경륜 경정과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있는 강원랜드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2015년 1월부터 본격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포츠도도와 로또 같은 복권사업에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자카드제가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기획 단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가장 먼저 나오는 비판은 불법 사행산업을 규제하고 단속할 사감위가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합법사행산업만 통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합법사행산업에서 끌여안고 있던 이용자들이 불법사행산업으로

몰리는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많다.

구자관 한중대 교수는 전자카드제가 “산업 현장의 특성이나 의견을 무시한 이상에만 치우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신분노출이 되는 국내를 피해 외국 카지노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걱정된다”며 “전자카드로 카지노 배팅을 하루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도 오히려 자기 카드로 남의 배팅 대신 해주는 새로운 폐해만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일반 고객 감소와 함께 수익에 큰 영향을 주는 VIP 고객의 해외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송학준 배제대 호텔컨벤션학과 교수는 “카지노와 같은 사행산업이 사회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은 맞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수익을 발생하고 있다고 과도한 규제를 남발하는 것은 자칫 환급알을 낚는 거위의 배를 가르느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



레저세·전자카드제란 무엇인가?

●**레저세**=정식명칭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저세를 2015년 1월부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포토)과 카지노에 매출액 10%로 적용하고 폐광지역지원특별법(폐특법)에 정해진 관광시설의 숙박·입장·사용료 등에 2% 관광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전자카드제**=경마, 경륜, 경정과 카지노 등에서 현금으로 경주권이나 칩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민등록증으로 전자카드를 지급받은 뒤 출전해 사용하는 제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데 카지노의 경우 하루 배팅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취재파일

복합리조트 산업의 미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1년에 6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데, “마카오는 라스베이거스의 6배인 48조의 매출이랍니다.”

요즘 복합리조트를 말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려한 해외 성공담이다. 숙박, 쇼핑, 엔터테인먼트, 게이밍(카지노) 등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리조트는 불과 2~3년 전만 해도 업계 관계자들 외에는 일반인에게 무척 낯선 용어였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 관광산업의 꽃'으로 불리며 수천, 수조원의 엄청난 숫자와 함께 언론에 등장하는 시사용어가 됐다. 지자체가 대규모 지역발전계획을 발표할 때도 단골로 등장하는 아이템이고, 거액의 해외투자 유치를 진행할 때도 복합리조트 추진을 들먹인다.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산업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복합리조트가 정말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고, 어떤 준비과정을 거쳐야할지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상할 정도로 이야기가 없다. 그저 '수천억원의 이익이 기대된다', '수십만명의 관광객을 부를 것이다', '수만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만 난무한다.

복합리조트 조성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게이밍 시설, 즉 카지노다. 영종도를 뜨겁게 달군 해외자본의 투자계획이나, 이웃 일본을 비롯해 복합리조트단지를 추진하는 외국의 사례, 그리고 얼마 전 잡상에 10조원을 투자해 복합리조트를 만들겠다고 했던 미국 샌즈 그룹의 제안에서도 핵심은 카지노다.

하지만 카지노 역시 진지한 고민이나 토론 연구가 없다. '죄악산업'의 대표적인 업종이라며 무시하거나 거론 자체도 부정시하는 정서적인 반대만 있을 뿐, 미래의 카지노 운영 정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냉정하게 검토해보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복합리조트 도입의 기준이 될 정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기관도, 앞으로 해외자본의 국내 진출로 새로운 경쟁상황을 맞게 될 카지노업체도 모두 조용하다. 일본에서는 총리까지 나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우리는 “괜히 말을 꺼냈다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 손해”라는 보신주의만 있다.

이런 가운데 9월이면 영종도에 쏟아졌던 여러 복합리조트 추진 계획 중 첫 주자로 국제업무 지구에 파라다이스 시티가 착공된다. 이제는 프로젝트로 발표된 기획이 아닌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논쟁과 고민, 연구를 자일피일 미루며 버티다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제야 허겁지겁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모습. 너무 자주 본 익숙한 행태이지만, 이제는 그만 보고 싶다.

김재범 전문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스포츠동아 안내
광고 문의 및 접수
☎ 02)2201-5558 FAX:02)3436-5554

간호사모집
♣경력직신규♣
♣지역거주자우대♣
♥제출서류♥
이력서
면허증 사본
자기소개서
원병원
031-590-3320
010-8736-7242

조선 최고의 영초
전종삼
강원도형성 토종 심메마니
010-3166-3116

고개속인 남성
“썬터치”가 인기!
■광고사건 실의필중
심의번호 2008-97-09-0065
(의료기기 제조 등록허가 취득)
제조허가 no 제8028
등록허가 no 제2000-1호

최근 만년필처럼 생긴 ‘썬터치’(발기 유발제 약물주입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발기부전에 사용하는 약물은 직접 주사하는 부담 때문에 기피하여 왔었는데 이를 ‘썬터치’라는 제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썬터치”는 버튼 하나만 간단히 약물(약물은 병, 의원

에서 처방함)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의료기기이고 불면처럼 작아 휴대가 편하다. 또한 조작이 쉬워서 누구든지 편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제품의 장점이다. (약물 효능은 병, 의원으로 문의)
문의 (서울)02-2279-4657
(부산)051-808-7411 BT코리아

강한 男子

음경 확대 귀두 확대 조루 치료 발기부전

●미세자가지방 이식술
●주사요법 확대술
●대체진피 이식술
●정관·포경수술
●바세린 및 이물질 제거술
●각종보형물 삽입술

열린상담
풍부한 경험
합리적인 비용

발기부전 봉(팽창형·굴곡형) 임플란트 시술
[수술당일 일반적인 생활가능] ★원터치 주사요법

24시간 상담 **대일남성의원**
(代) 02)457-8778
※일요일·공휴일·야간 예약 수술 가능
※5·7호선 군자역 6번출구 농협 2층

나만의 女人

공기인형 신장 160cm

신용카드 결제환영

할인가격
19만원~25만원

외로운 남성분들을 위한 최선의선택
가격부담을 속 시원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내구성이 강화된 두겹으로 튼튼하고 부드러운 탄력성이 우수한 제품 사용하시기 편한 자세로 완성된 제품 인생을 즐겁게 누리세요~~!

※제조원:고려물산 MADE IN KOREA

음경파로 고향파로
정력불뚝 팬티 5장 5만원

구입 010-5608-1237
문의 010-2655-1326
예금주:고려물산 기업은행 017-082677-01-018

성생활용품 창업지원

소매가격은 사장님이 알아서 받으십시오

시중가격은 20만원이상
20만원대
뉴-파워맨
5만5천원

시중의 모든링과 모든용품 왕도매
●발기는되는데 힘이 약한분
●행위도중에 금세 시드는분
●분위기에 따라 낮가리는분
(시중가의 1/3 가격에 출고)

없는데 없습니다 7백여종류 총판

역시 서민 유통

●독신여성용(기구) 32,000원
●독신남(도우미걸) 35,000원
●벨트착용식(음경) 55,000원
●실리콘콘돔(3종) 39,000원

찾아오셔도 되고 인터넷 주문도 됩니다
수원전철역 9번출구앞 서민유통

인터넷으로 도매가격보기
검색창알고 맨위주소창에다 치세요
www.서민유통.com

●20만원대 음경확대기(4만) ●오리지널 러브젤(2만)
택배주문시(농협) 박정순 1108-12-131641
수원역전 9번출구앞 서민유통 (031)241-4568